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노 윤 옥* · 전 미 경**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석사*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A Study o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the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Roh, Yun-Ok* · Jun, Mi-Kyu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Dongguk Univ.**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the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80 adolescents from 3 middle school in Seoul and Gyung Ki-Do.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 is not generally high level and the disposal utility factor by adolescent form is higher compare with other numerical index , the contents by adolescent is perceived lower compare with numerical index. Second, the students are mostly having open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but usually more open communications with their mothers. Third, perceiving marital conflict by the adolesc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 is the less the students are conscious of parents conflict, the more the students have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The higher Being conscious of marital conflict, the more the students have trouble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주제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부모자녀 의사소통(parent-children communication)

1) 교신저자: 전미경(preba@chol.com)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 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서로 다른 가족환경 속에서 성장한 성인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상이한 가족경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고방식, 가치관, 역할기대의 차이를 낳는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부부갈등을 야기하지만,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부부갈등은 가족원 모두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특히 자녀에게는 더욱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부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청소년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특히 불량한 것, 부정적인 것을 더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 보다는 그들의 관심과 흥미 등이 비슷한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점점 감소하고 세대차이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의 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때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 안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서로 다른 세대간의 입장을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해 있는 난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부부갈등에 대한 부모의 보고를 사용했다. 그러나 권영옥·이정덕(1997)의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이후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보고를 사용한 연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청소년 자녀에 의한 부부갈등지각에 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류승희(2000), 이혜수(2003), 이경희(2003)의 연구가 있으나 아직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으로 이미 상당한 연구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주목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명희(1987), 권미경(1993), 최인경(2001), 이성실(2003), 국길숙(2003)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연구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자기신념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와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자녀의 지각에 초점을 두어 부부갈등을 주목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더군다나 부부갈등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지각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부갈등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청소년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부갈등을 줄이고, 갈등의 효율적 대처를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교에서는 교과과정 전개시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가족생활 영역을 지도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①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배경변인(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생활수준,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②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배경변인(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생활수준,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③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갈등

일반적으로 갈등은 개인 내부에서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대인관계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대립현상을 말하며,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충동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바람과 다른 사람의 바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과정이다(유영주, 1992; 구아영, 1997). 이러한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본질적으로 파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충족과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충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부부갈등은 부부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그에 대해 얘기할 때 갈등이 시작되며 이때 상대방의 목표는 방해 받게 된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가족체계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부부 각각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와 이해의 결여와 같은 장애물, 그로 인해 받는 어려움의 정도와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한혜빈, 1995).

이와 같은 부부갈등의 요인은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가정소득, 주부의 취업유무, 가족형태, 성역할 태도, 재정적 관리의 문제, 친인척 문제, 성격불일치, 배우자의 무관심과 부정행위, 부부의 연령, 자녀문제, 의사소통 문제, 가사노동 분담, 역할기대 등 매우 다양한다(한남제, 1987; 길미령, 1990; 김갑숙, 1991, 김재경, 1991, 송성자, 1997), 대체로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 가치관과 성격차이, 역할기대, 의사소통 문제 등이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갈등은 갈등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부부갈등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부부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자녀는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Grych & Fincham, 1990), 부부간의 갈등에 노출되었던 자녀들은 불

안, 우울, 의기소침 등과 같은 정서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Cummings, Goeke-Morey, Papp, 2001, 유영주 외, 2004 재인용). 또한 가정이 갈등적이고 폐쇄적이며 부부불화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학대가 많이 발생하며(김경희, 1993), 가정에 불화가 잦고 가족간의 갈등이 많은 가정일수록 정상가족에 비해 부모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자녀의 비행행동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민하영, 1991).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과 긴장감으로 가정생활을 계속할 때 자녀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법의 가치기준과 행동규칙을 수용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부부의 불화는 가족체계의 긴장 유발과 불만 요인으로 기능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은 자녀를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할 수 없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우울해지고 부모에게 쉽게 격분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이영숙 외, 1999).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반향적 과정으로(민하영, 1991), 이는 청소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부모의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득하는 시기로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가 먼저 대화를 건네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을 잃고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촉진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부모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관계 확립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사회성, 도덕성, 문제행동, 학습능력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로 일어나는 의문, 오해나 갈등, 그 외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며(정명희, 1988, 남현주, 1996), 청소년의 인간관계 발전과 아울러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 발달을 돕기 때문에(정혜영, 1986; 김미호,

1989; 민혜영, 1990)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가정환경과 부모의 행동 등 여러 변인이 청소년의 가치지향, 현실인식, 태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이재창, 1983), 특히 청소년은 자신이 지각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 때가 불화인 경우 보다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노영남, 1982),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대화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부모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황순규, 1997).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1993)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가정적 상황에서는 '부부싸움이 잦고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함'이 47%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가족관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촉발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척도인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순환모델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가족 응집성은 가족원 상호간에 지니는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의 권력구조나 역할, 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융통성의 정도를 뜻한다. 또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반면, 폐쇄형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중 가족의 기능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Barnes와 Olson(1982)의 의사소통 분류에 따르고자 한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인	설명	빈도수	백분율(%)	변인	설명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	224	52.2	학년	1학년	172	40.1
	여	205	47.8		2학년	134	31.2
가족유형	핵가족	374	87.2		3학년	123	28.7
	확대가족	55	12.8	생활수준	상류	26	6.1
출생순위	첫째	190	44.3		중상류	249	59.1
	중간	42	9.8		중하류	140	33.2
	막내	163	38.0		하류	7	1.6
	독자	34	7.9	모 연령	31~40세	143	33.3
부 연령	31~40세	38	8.9		41~50세	277	64.6
	41~50세	370	86.2		51세 이상	9	2.1
	51세 이상	21	4.9	모 학력	초등학교졸업	6	1.4
부 학력	초등학교졸업	9	2.1		중학교졸업	18	4.3
	중학교졸업	10	2.4		고등학교졸업	243	56.6
	고등학교졸업	171	40.4		대학졸업	123	29.0
	대학졸업	167	39.5		대학원이상	34	7.6
	대학원이상	66	15.6	모 직업	단순근로직	22	5.1
부 직업	단순근로직	34	8.0		숙련직	29	6.8
	숙련직	47	11.0		판매직	71	16.7
	판매직	61	14.3		농림축산업	5	1.2
	농림축산업	3	0.7		사무관리직	71	16.7
	사무관리직	221	51.9		전문직	41	9.6
	전문직	60	14.1		전업주부	187	43.9
	무직	0	0				

〈표 2〉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계수	하위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계수
빈도	6	.79	자기비난	5	.71
강도	7	.84	지각된 위협	6	.78
해결	6	.80	대처효율성	6	.71
내용	4	.76	삼각관계	4	.61
부부갈등	44	.90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에 걸쳐 서울시 소재의 2개 중학교와 경기도에 소재한 1개 중학교 남녀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부실 기재된 경우(25명), 한부모 가족인 경우(18명),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4명)를 제외한 429부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와 같다.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를 살펴보면, Grych의(1992)가 개발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이정덕(1997)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정도, 내용과 갈등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 해당되는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 비난, 삼각관계의 8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영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① 빈도는 부부갈등의 노출 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② 강도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 ③ 해결은 부부갈

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자녀의 지각, ④ 내용은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 ⑤ 자기비난은 부부갈등 원인이 자녀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는 것, ⑥ 지각된 위협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 ⑦ 대처효율성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녀의 지각, ⑧ 삼각관계는 부부갈등 상황 시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부부갈등 척도의 8개 하위차원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계수는 <표 2>과 같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민하영(1991)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 관한 Cronbach's α계수는 <표 3>과 같다.

3. 자료분석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Window용 SPSS 10.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또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 의사소통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Cronbach's α계수	하위척도	문항수	Cronbach's α계수
개방형	10	부	문제형	10	부
		모			모
		.90			.77
		.89			.78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먼저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응답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 하지 않았다. 부부갈등의 평균은 1.63점으로 부부갈등을 약간 인식하고 있다는 2점에 못 미치고 있다. 이것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처 효율성이 1.86으로 다른 요인보다 약간 높았으며,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다고 지각하는 정도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로 살펴보면 '내용' (F=4.403, p<.05)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졸이하(M=1.37), 고졸이하(M=1.38) 집단보다 대졸이상(M=1.51) 집단에서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자녀가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다고 지각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M=1.63)이거나 대졸이상(M=1.61)의 집단보다는 중졸이하(M=1.78) 집단의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영역 중 '내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F=4.701, p<.05)가 나타나 중졸이하에서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가장 높게 지각했는데 이는 아버지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셋째, 부모의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사무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단순근로직이나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F=3.581,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

〈표 4〉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전반적인 경향(N=429)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삼각관계	부부갈등
평균	1.69	1.67	1.51	1.45	1.59	1.69	1.86	1.47	1.63
표준 편차	.48	.50	.47	.47	.45	.53	.47	.45	.31

이제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생활수준 등 배경변수에 따라 자녀는 부부갈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학생(M=1.66)이 여학생(M=1.60)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31, p<.05). 전반적으로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갈등 상황을 조금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 중 '자기 비난 영역'(t=2.328, p<.05)과 '삼각관계'(t=2.081, p<.05)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부모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에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하위영역별

는 경우보다 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도'(F=3.461, p<.05), '위험'(F=4.402, p<.01), '강도'(F=3.994, p<.01) 영역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근로직, 판매직인 자녀는 부부갈등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지각하였고, 갈등상황에서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심각하게 지각하였다. 하지만 '내용'(F=2.697, p<.01)영역에 있어서는 단순근로직(M=1.34)의 경우와 사무관리직(M=1.50)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사무관리직인 경우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다고 더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M=1.66)이거나 전업주부(M=1.67)일 경우 보다 판매직(M=1.54)일 경우 부부갈등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표 5> 배경변수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 M(S.D)

배경변수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자기 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삼각 관계	부부 갈등	
성별	남	1.69(.46)	1.69(.51)	1.54(.48)	1.49(.48)	1.64(.45)	1.73(.53)	1.89(.47)	1.52(.47)	1.66(.30)
	여	1.69(.50)	1.64(.49)	1.49(.45)	1.41(.45)	1.54(.45)	1.63(.52)	1.82(.47)	1.43(.42)	1.60(.30)
	t	-.099	1.083	1.059	1.639	2.328*	1.926	1.398	2.081*	2.131*
출생순위	첫째	1.64(.48)	1.65(.49)	1.49(.47)	1.47(.48)	1.60(.45)	1.64(.55)	1.86(.49)	1.49(.46)	1.62(.31)
	중간	1.67(.47)	1.67(.52)	1.44(.43)	1.48(.45)	1.61(.42)	1.82(.44)	1.96(.44)	1.48(.44)	1.66(.29)
	막내	1.71(.46)	1.67(.49)	1.54(.46)	1.41(.44)	1.56(.46)	1.69(.51)	1.85(.45)	1.43(.41)	1.63(.30)
	독자	1.87(.52)	1.77(.56)	1.58(.55)	1.52(.52)	1.63(.51)	1.71(.57)	1.78(.48)	1.59(.51)	1.70(.33)
	F	2.393	.530	.805	.780	.314	1.348	1.041	1.408	.737
부연령	31-40세	1.59(.45)	1.64(.57)	1.47(.55)	1.48(.48)	1.63(.44)	1.75(.56)	1.81(.44)	1.58(.51)	1.63(.29)
	41-50세	1.69(.46)	1.67(.49)	1.51(.46)	1.44(.46)	1.58(.45)	1.68(.53)	1.86(.48)	1.46(.44)	1.63(.30)
	51세이상	1.82(.66)	1.77(.57)	1.57(.52)	1.60(.63)	1.77(.58)	1.67(.44)	1.96(.41)	1.58(.41)	1.73(.36)
	F	1.582	.511	.324	1.270	2.021	.277	.706	1.974	1.114
모연령	31-40세	1.65(.46)	1.63(.49)	1.47(.50)	1.48(.47)	1.63(.43)	1.73(.53)	1.82(.47)	1.53(.44)	1.63(.30)
	41-50세	1.71(.47)	1.69(.50)	1.53(.45)	1.44(.46)	1.56(.46)	1.66(.53)	1.87(.47)	1.44(.45)	1.63(.31)
	51세이상	1.76(.68)	1.54(.51)	1.62(.57)	1.46(.55)	1.73(.68)	1.76(.46)	1.98(.50)	1.61(.45)	1.69(.40)
	F	.750	.956	.974	.298	1.674	.899	1.012	2.253	.176
부학력	중졸이하	1.73(.49)	1.66(.50)	1.61(.53)	1.37(.47)a	1.69(.53)	1.77(.49)	1.88(.41)	1.59(.44)	1.68(.32)
	고졸	1.74(.48)	1.73(.49)	1.55(.44)	1.38(.42)a	1.54(.42)	1.72(.51)	1.90(.47)	1.48(.43)	1.65(.28)
	대졸이상	1.65(.47)	1.61(.50)	1.47(.48)	1.51(.49)b	1.61(.47)	1.65(.54)	1.82(.47)	1.46(.46)	1.61(.32)
	F	1.812	2.745	1.761	4.403*	1.961	1.161	1.235	.755	1.189
모학력	중졸이하	1.83(.50)	1.86(.49)	1.69(.49)	1.58(.57)b	1.68(.53)	1.80(.46)	2.02(.44)	1.64(.45)	1.78(.31)b
	고졸	1.70(.46)	1.68(.49)	1.51(.45)	1.39(.42)a	1.56(.43)	1.70(.53)	1.88(.49)	1.46(.43)	1.63(.29)a
	대졸이상	1.64(.49)	1.62(.50)	1.48(.49)	1.52(.50)ab	1.61(.47)	1.63(.52)	1.80(.45)	1.46(.46)	1.61(.31)a
	F	1.843	2.621	2.173	4.701*	1.325	1.545	2.869	1.714	3.480*
부직업	단순근로	1.75(.50)bc	1.77(.54)b	1.63(.50)b	1.34(.39)a	1.56(.45)	1.78(.54)ab	1.93(.48)	1.51(.44)	1.69(.30)bc
	판매직	1.83(.51)c	1.80(.58)b	1.54(.50)ab	1.42(.46)ab	1.56(.49)	1.85(.58)b	1.95(.49)	1.52(.45)	1.71(.34)c
	사무관리	1.67(.45)ab	1.62(.45)a	1.48(.45)ab	1.50(.47)b	1.60(.46)	1.62(.49)a	1.82(.45)	1.47(.46)	1.61(.29)ab
	전문직	1.58(.46)a	1.58(.48)a	1.45(.45)a	1.45(.53)ab	1.60(.40)	1.61(.53)a	1.78(.50)	1.38(.42)	1.57(.30)a
	F	3.461*	3.994**	2.635*	2.697*	.218	4.402**	2.397	1.222	3.581*
모직업	단순근로	1.66(.42)ab	1.71(.49)	1.55(.46)	1.47(.51)	1.58(.48)	1.66(.50)	1.87(.42)	1.52(.45)	1.64(.25)ab
	판매직	1.58(.41)a	1.55(.48)	1.40(.42)	1.36(.41)	1.52(.42)	1.64(.56)	1.80(.50)	1.38(.40)	1.54(.29)a
	사무관리	1.62(.41)ab	1.62(.46)	1.51(.44)	1.40(.43)	1.60(.44)	1.58(.43)	1.86(.49)	1.45(.47)	1.59(.29)ab
	전문직	1.73(.51)ab	1.69(.51)	1.48(.47)	1.57(.46)	1.63(.45)	1.76(.62)	1.80(.43)	1.55(.45)	1.66(.34)b
	전업주부	1.77(.52)b	1.71(.51)	1.55(.50)	1.48(.48)	1.61(.46)	1.74(.53)	1.89(.49)	1.49(.45)	1.67(.32)b
F	2.861*	1.641	1.390	1.739	.587	1.608	.584	1.366	2.662*	
모직업유무	유	1.64(.43)	1.63(.48)	1.48(.44)	1.43(.45)	1.58(.45)	1.65(.52)	1.83(.46)	1.46(.44)	1.60(.29)
	무	1.77(.52)	1.71(.51)	1.55(.50)	1.48(.48)	1.61(.46)	1.74(.53)	1.89(.48)	1.49(.45)	1.67(.32)
	t	-2.838**	-1.616	-1.428	-.950	-.769	-1.749	-1.134	-.540	-2.323*
생활수준	중상류이상	1.65(.46)	1.62(.50)	1.48(.46)	1.46(.47)	1.60(.45)	1.65(.52)	1.80(.46)	1.47(.46)	1.60(.31)
	중하류이하	1.78(.50)	1.76(.50)	1.58(.49)	1.46(.46)	1.58(.47)	1.77(.52)	1.97(.47)	1.48(.43)	1.70(.30)
	t	-2.709**	-2.909**	-2.107*	.018	.334	-2.335*	-3.557***	-.226	-3.034**
가족유형	핵가족	1.69(.48)	1.66(.50)	1.51(.47)	1.46(.48)	1.59(.46)	1.67(.52)	1.85(.47)	1.47(.45)	1.63(.31)
	확대가족	1.70(.44)	1.71(.45)	1.53(.45)	1.40(.37)	1.61(.38)	1.78(.52)	1.90(.45)	1.50(.44)	1.66(.29)
	t	-.121	-.598	-.346	1.161	-.307	-1.465	-.777	-.395	-.731

* p<.05, ** p<.01, *** p<.001

하위 영역에서는 ‘빈도’($F=2.86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판매직($M=1.58$)에 종사할 경우 부부싸움의 ‘빈도’를 가장 낮게 지각하였고 전업주부($M=1.77$)일 경우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또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자녀의 부부갈등 지각은 유의미한 차이($t=-2.323, p<.05$)가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M=1.60$) 보다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M=1.67$)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t=-2.838, p<.01$)가 나타났는데 직업이 없을 경우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로, 생활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상류 이상의 집단보다 중하류 이하의 집단이 갈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생활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인식한 부부갈등에는 유의한 차이($t=-3.03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상류 이상의 경우보다 중하류 이하의 경우에서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하위영역에서도 ‘빈도’($t=-2.709, p<.01$), ‘강도’($t=-2.909, p<.01$), ‘해결’($t=-2.107, p<.05$), ‘지각된 위협’($t=-2.335, p<.05$), ‘대처효율성’($t=-3.557, p<.001$)에 있어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과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 가족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형 의사소통보다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M=3.30$)보다 어머니($M=3.55$)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유의한 결과 차이($t=-6.992, p<.001$)가 나타났다. 즉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더 많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나 부모-자녀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출생순위·부모연령·부모학력·부모직업·생활수준·가족유형 등의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서 첫자녀($M=3.64$)가 중간 서열의 자녀($M=3.23$)보다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67, p<.05$), 반대로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 중간 서열($M=3.05$) 청소년들이 다른 경우보다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334, p<.05$).

둘째, 부모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부모 모두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연령이 젊은 집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F=4.701, p<.05$),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3.894, p<.05$).

셋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에도 유의한 차이($F=3.509,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51세 이상일 때 보다 50세 이하일 때 개방형 의사소통은 더 잘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연령이 젊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51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수	평균	표준편차	paired-t-test
개방형 의사소통	아버지	3.30	.87	-6.992***
	어머니	3.55	.83	
문제형 의사소통	아버지	2.71	.68	-1.202
	어머니	2.75	.68	

*** $p < .001$

〈표 7〉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M(S.D.)

배경변수		아버지		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성별	남	3.29(.87)	2.74(.67)	3.48(.79)	2.73(.65)
	여	3.32(.88)	2.69(.69)	3.62(.87)	2.76(.72)
	t	-.359	.742	-1.701	-.419
출생 순위	첫째	3.32(.90)	2.68(.68)	3.64(.82) b	2.71(.66) a
	중간	3.21(.84)	2.86(.68)	3.23(.88) a	3.05(.68) ab
	막내	3.30(.83)	2.71(.66)	3.53(.81) ab	2.70(.69) a
	독자	3.31(1.01)	2.73(.75)	3.51(.85) ab	2.81(.68) a
	F	.184	.746	2.867*	3.334*
부 연령	31~40세	3.53(.85) b	2.50(.62)	3.71(.77) b	2.51(.51)
	41~50세	3.30(.87) b	2.74(.69)	3.56(.83) b	2.77(.70)
	51세 이상	2.81(.75)a	2.84(.60)	3.10(.80) a	2.79(.63)
	F	4.701*	2.382	3.894*	2.455
모 연령	31~40세	3.41(.88) b	2.63(.71)	3.66(.85)	2.64(.68)
	41~50세	3.26(.87) b	2.75(.66)	3.50(.82)	2.80(.68)
	51세 이상	2.72(.47) a	2.87(.74)	3.28(.60)	2.73(.56)
	F	3.509*	1.708	2.280	2.817
모 학력	중졸이하	2.81(.79) a	2.92(.67)	2.94(.96) a	2.93(.76)
	고졸이하	3.33(.85) b	2.70(.69)	3.58(.77) b	2.74(.65)
	대졸이상	3.34(.90) b	2.69(.69)	3.60(.85) b	2.73(.73)
	F	4.267*	1.198	7.102**	.892
부 직업	단순근로	3.19(.83) a	2.67(.67)	3.44(.82)	2.68(.68)
	판매직	3.11(.82) a	2.88(.55)	3.49(.80)	2.91(.56)
	사무관리	3.34(.89) ab	2.72(.72)	3.60(.83)	2.74(.72)
	전문직	3.50(.89) b	2.63(.64)	3.59(.87)	2.72(.66)
	F	2.641*	1.577	1.013	1.525
생활 수준	중상류이상	3.38(.88)	2.67(.70)	3.61(.83)	2.70(.70)
	중하류이하	3.14(.84)	2.82(.64)	3.41(.81)	2.86(.64)
	t	2.730**	-2.163*	2.404*	-2.348*
가족 유형	핵가족	3.35(.88)	2.69(.66)	3.58(.83)	2.73(.68)
	확대가족	2.98(.79)	2.88(.77)	3.36(.83)	2.87(.69)
	t	2.908**	-1.894*	1.807	-1.428

* p<.05, ** p<.01, *** p<.001

넷째, 부모 학력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이 모두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F=4.267, p<.05), 어머니(F=7.102, p<.01) 모두와 개방형 의사소통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

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가 고졸이상일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가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 직업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 관계에 유의한 차이($F=2.641,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아버지가 판매직, 단순근로직에 종사하는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은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직업 종류에 따라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모든 의사소통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있어 생활수준이 중하류이하인 경우보다 중상류이상인 경우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t=2.730, p<.01$)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머니와도 개방형 의사소통($t=2.404, p<.05$)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생활수준이 중하류 이하일 경우 부모 모두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째, 가족유형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알아 보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확대가족의 경우보다는 핵가족($M=3.35$)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t=2.908, p<.01$)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대가족의 경우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t=-1.894, p<.05$)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는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의 관계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자녀간 의사소통 관계

이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부갈등 및 하위 영역과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부갈등 및 하위 영역과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433$)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자녀가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에서는 대처효율성($r=-.425$)과 개방형 의사소통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해결($r=-.402$), 강도($r=-.367$), 빈도($r=-.352$), 지각된 위협($r=-.198$), 삼각관계($r=-.17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냈다.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471$)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에서는 빈도($r=.363$)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부갈등과 아버지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간에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해결($r=.355$), 강도($r=.354$), 대처효율성($r=.351$)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부부싸움의 강도가 심할수록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와는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표 8〉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자녀간 의사소통 관계 (N=429)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삼각관계	부부갈등
개방형 의사소통	-.352***	-.367***	-.402***	-.069	-.055	-.198***	-.425***	-.179***	-.433***
문제형 의사소통	.363***	.354***	.355***	.223***	.178***	.246***	.351***	.261***	.471***

*** $p < 0.001$

2)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관계

전체적으로 부부갈등 및 하위 영역과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부갈등 및 하위 영역과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아버지와 자녀간 의사소통 관계와 같은 경향을 가진다.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426$)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자녀가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위영역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빈도($r=-.393$), 강도($r=-.357$), 해결($r=-.353$)과 개방형 의사소통간에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부갈등($r=.456$)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모든 하위 영역들이 문제형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빈도($r=.415$)와 강도($r=.381$)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녀가 강도가 심한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할수록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1.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위차원별로 살펴보면 '대처효율성'은 다른 차원에 비해 높게 지각하였고 '내용'은 다른 차원에 비해 낮게 지각하였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의 내용을 자신이 아닌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생활수준, 가족유형에 따라 부부갈등을 다르게 지각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데 이는 류승희(2000), 이해수(2003)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하위요인에서는 '내용'과 '삼각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했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고 부부갈등 상황에서 단처함이나 곤란함을 더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남아는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일 때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고(Grych & Ficham, 1993)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모가 논쟁을 벌인다고 생각하면 더욱 좌절하

〈표 9〉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관계

(N=429)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삼각관계	부부갈등
개방형 의사소통	-.393***	-.357***	-.353***	-.185***	-.155***	-.154**	-.334***	-.130**	-.426***
문제형 의사소통	.415***	.381***	.292***	.292***	.192***	.204***	.306***	.165**	.456***

** p < .01, *** p < 0.001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부갈등과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전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부갈등과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내용과 자기비난 영역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 된다. 이는 남아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책임감을 더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부모가 중졸이하일 경우 부부갈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김갑숙, 1991), 부부간의 안정성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교육수준의 증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송성자, 1985). 하위요

인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중졸이하일 경우 부부갈등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는 '내용'을 높게 지각해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부모의 직업이 사무관리직이나 전문직일 경우 보다 단순근로나 판매직일 경우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데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근로직이나 판매직일수록 자녀는 '해결', '빈도', '지각된 위협', '강도'를 높게 지각했다. 이는 자녀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잦은 부부갈등을 목격하여 갈등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갈등상황을 심각하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 경우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고 갈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부부갈등을 가장 적게 지각한다는 류승희(2000)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부갈등은 단순히 직업 유무 외에 여러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업을 가지는 경우와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경우는 부부갈등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녀가 지각하는 생활수준이 중상류 이상일 경우 보다 중하류 이하일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고, 중하류 이하로 지각할수록 '빈도', '강도', '해결',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자녀는 심각한 부부갈등에 자주 목격하게 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두려움을 느끼고 갈등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의 수입 정도가 부부간 갈등과 상관성이 있다는 조영란(1994)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언쟁, 폭력 행동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김갑숙, 1991). 생활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지각은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의 하위영역에 대한 지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낮을수록 자녀는 부부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앞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거나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자제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녀가 갈등상황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2.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전반적으로 문제형 의사소통 보다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머니와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어머니와 대화시간이 더 많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정서적 개방이 더 격려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표현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 생활수준, 가족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에서 성별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권혜진(1993)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첫째 자녀와 가장 많이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고 중간 서열의 자녀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를 통해 첫째 자녀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아버지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 모두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황정규(1982), 조희진(1982), 옥선화(1985)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고 원활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김양숙(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 경우 부모 모두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이결남(1989), 이금(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에서 일방적 전달방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한 김정희(1987)의 연구와 상반되며, 어머니의 학력과 의사소통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김양숙(1995), 국길숙(200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

통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이석경, 1987; 정혜영, 1986; 이금, 1994)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의사소통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권혜진(1993), 민혜영(1990), 오연옥(1987)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진숙(1983)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 모의 취업이 자녀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치나 모의 직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직업 종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가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오연옥(1987), 이금(1994)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핵가족일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확대가족일수록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버지의 연령이 적고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가정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친밀감이나 일체감, 유대감을 많이 느끼고 가족의 규칙이나 역할 등에 융통성을 가지게 되어 기능적인 가족이 된다. 이는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부모-자녀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녀의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아버지, 어머니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였다. 이는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대화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대처효율성, 해결, 강

도, 빈도, 삼각관계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그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고, 노출빈도가 적고, 두려움과 난처함이나 곤란함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대처효율성'과 '해결'에서 높은 상관을 보여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와 원만한 해결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이 자녀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각하는 '내용'과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비난'은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는 부부갈등의 요인이 자녀문제보다 부부간 성격차이, 고부갈등, 친족문제,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빈도, 강도, 해결, 대처효율성, 내용,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삼각관계 순으로 특히 '빈도'와 '강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자녀 앞에서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갈등의 모든 하위영역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녀가 심각한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하고, 자녀 자신과 관련되거나 자신의 탓이라고 지각하고, 갈등상황에서 두려움과 난처함, 곤란함을 많이 느끼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부부갈등시 자녀가 '빈도', '강도', '해결'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부모가 잦은 부부싸움을 하고 그 강도가 언어적 싸움에서 폭력 등으로 심각해지고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빈도', '강도', '내용', '해결'이 특히 자녀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부정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밝힌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갈등빈도가 많을수록 그 상황을 보다 예민하게 하여 더 많은 행동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Grych & Fincham, 1990).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의사소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자녀는 부부갈등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부갈등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정감을 경

협하게 된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하지만 부부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므로 가능한 부부갈등을 줄이면서 동시에 갈등시 대처방법과 갈등표출 방법을 모색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부부갈등에 대해 자녀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각하지 않도록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 부부갈등이 최소화 될수록 부모와 자녀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만족스럽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올바른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무엇보다도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또래집단의 영향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녀가 모든 상황에 대해 의논할 수 있도록 늘 이해하고 도와주는 부모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더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측면과 심각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부부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나 갈등 대처방법 등의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자녀들이 가족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는 더욱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혼 가정의 예방과 적응,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2개 중학교, 경기도내 1개 중학교 남·여학생 480명으로 연구대상이 일부지역 소수의 표본을 근거로 이루어졌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근거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는 1991년 민하영에 의해 수정된 질문지로, 더욱 타당도가 높은 연구를 위하여 요즘의 청소년들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재수정된 질문지가 요구된다. 셋째, 배경 변인 중 생활수준은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 수준이 아닌 자녀가 지

각하는 수준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제시된 지표로 생활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의사소통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대상에 따라 새로운 연구결과가 기대되므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이존중감과의 관계, 서울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타당화연구, 아동학회지 18권 1호
- 권혜진(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1990) 부부의 공동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1983)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남현주(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논리 사고의 관계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노영남(1982) 환경 및 부부관계 만족도가 부인의 성격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류승희(2000)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박수잔(1996)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 박사학위논문.
- 오연옥(1987)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1985)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권 1호, 79-92
- 유영주 외(2004) 『새로운 가족학』, 도서출판 신정.
- 이결남(1989) 어머니와 여고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석경(1987)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수(2003)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 정혜영(1986) 십대자녀의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1,2학년울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조영란(1993)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Vol 2 No.1, 79-92.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Grych, J.H.,& Fincham, F.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H.,& Fincham, F.D(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 중학교 남, 여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일원변량 분석, Duncan검증, Pearson 상관계수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대처효율성은 다른 차원에 비해 높게 지각하고 내용은 낮게 지각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고, 부모의 학력이 낮고, 생활수준이 중하류 이하일 경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전반적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머니와 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첫째와 가장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고 중간 서열의 자녀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가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모연령이 적을수록, 부직업이 전문직일수록, 핵가족일수록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확대가족일수록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

셋째, 자녀가 부부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고,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다.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에서는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내용'과 '지기비난' 영역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모든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빈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문접수일자: 2006년 1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9일